

남아프리카의 환경 보호 활동가 기초 교육 및 전문 훈련 학교

남아프리카 크루거 국립 공원 인근에 있는 '남아프리카 와일드라이프 칼리지'는 환경 보호 활동가 교육과 훈련의 장이자 자연 보호 활동의 기준 정립에 힘쓰는 전문 기관이다.

Power Rangers

For over two decades, the Southern African Wildlife College has been training conservationists from around the region and setting the standard for conservation practices.



남아프리카 와일드라이프 칼리지(SAWC)
The Southern African Wildlife College (SAWC)





SAWC의 수업 풍경. 학생들은 남아프리카 전역에서 모여든다(왼쪽 페이지). 자연 보호 활동을 위한 전문 지식은 물론 컴퓨터 사용법과 행정 처리까지 종합적으로 가르친다(위). 학교 내 도서관과 자료 센터(오른쪽).

A lecture at the SAWC. Students at the college hail from across southern Africa (opposite). In addition to imparting conservation expertise, the SAWC teaches computer literacy and administrative skills (above). The SAWC's library and resource center (right).

“남아프리카 와일드라이프 칼리지(SAWC)’에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밀렵꾼을 체포해 법정에 세우는 일만 할 줄 알았어요.” 잠비아의 리우와 플레인 국립 공원에서 야생 생물 보호 담당 고위 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암스트롱 칭가의 말이다. “이곳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연 보호는 단지 동물을 구분할 줄 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동체 문제도 살펴봐야 하고, 식생 보전도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하며, 기후 변화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SAWC는 남아프리카에서 이미 운영 중인 환경 보호 관리 교육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많은 대학에서 환경 보호 관련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상급 교육 과정은 현직 경비대원을 교육하여 그들이 미래의 정책 결정권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SAWC의 ‘상급 교육 및 훈련 과정’ 책임자인 올란다 프레토리우스 박사의 설명이다.

SAWC는 설립 이래 다양한 활동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확대해 왔다. 독도법과 증거 수집 등 법 집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내용을 다루는 6주짜리 현장 경비대원 과정부터, 소외 계층 청소년을 환경 보호 분야 전문가로 양성하기

“Before I studied at the Southern African Wildlife College [SAWC], all I knew was apprehending suspects, arresting them and taking them to court,” says Armstrong Chinga, a senior wildlife police officer at Liuwa Plain National Park in Zambia. “Doing this course has turned my way of thinking upside down. Conservation isn’t just about knowing which animal is which. It’s about community, it’s about vegetation, it’s about climate change.”

South Africa’s SAWC was founded to plug the gap in conservation management courses in southern Africa. “Most universities offer degrees in conservation,” says Dr Yolanda Pretorius, who heads up the SAWC’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but our Higher Education courses are about molding the rangers of today so they can become the decision-makers of the future.”

Since its inception, the SAWC has broadened its scope to include numerous occupational offerings, like a six-week field ranger course that focuses on the practical side of law enforcement, such as map reading and evidence

위한 6개월짜리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자연 보호와 공동체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국가 공인 수료증 과정, 그리고 위험한 동물이 서식하는 자연 보호 지역에서 관광객을 안전하게 통솔할 안내원을 양성하는 훈련 과정 등이 여기에 속한다.

SAWC는 독특한 응용 학습 분야를 개발해 타 교육 기관과 확실한 차별화를 시도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학력 평가 기관에서 공인하는 ‘자연 보호 업무 수행과 리더십 부문 상급 수료증 과정’ ‘접경지대 자연 보호 관리 부문 고급 수료증 과정’ 등이 대표적이다.

프레토리우스 박사는 환경 보호 관련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많은 교육 기관이 대체로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론 수업에 치중하는 반면 SAWC는 현장 학습에 주력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경비대원과 환경 보호 활동가가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학생들은 예산을 짜고, 배수로를 설치하며, 생태계의 차이를 이해하고, 침식 지대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죠.” 프레토리우스 박사에 따르면 SAWC는 남아공 최대의 야생 동물 보호 구역인 크루거 국립 공원 인근에 자리한 덕분에, 학생들은 생태계, 공동체, 밀렵 등 매일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실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collection; the Youth Access: Bridging Program, aimed at bringing disadvantaged youth into the conservation sector, and the National Certificate: Nature Conservation: Resource Guardianship course, which offers a path toward combining conserv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The college’s applied learning approach sets it apart. This is particularly true of the Higher Certificate in Nature Conservation: Conservation Implementation and Leadership and the follow-on Advanced Certificate in Nature Conservation: Trans-Frontier Conservation Management courses. “Our courses focus on what rangers and conservation practitioners actually do,” says Pretorius. “Students walk out knowing how to set up a budget ... build a drainage culvert, understand different ecosystems and manage eroded areas.” Moreover, because the college is located near Kruger National Park, South Africa’s largest game reserve, “Students encounter real-life situations as they occur, be they ecological, community or poaching-related,” Pretorius adds.

야생과 보호 사이 상급 및 고급 수료증 취득 1년 과정은 학교에서 수행하는 수업과 본국으로 귀국한 뒤 학생들의 직장에서 추가로 16주의 실습까지 마쳐야만 수료할 수 있다. 수업 기간 중 학생들은 적지 않은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지만, 배운 이론을 실습하기 위해 멀리 나갈 필요가 없다. 근교의 대초원으로 나가 식생 조사가 가능하며,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경비견 부대와 함께 다니며 밀렵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 실습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해당 과정에서 요구하는 ‘업무 통합 학습’을 완료해야 한다.

상급 수료증 취득 과정에서는 행정 처리 및 컴퓨터 사용법 같은 기초 기술과 함께 생태학, 동식물학, 제반 법규 및 관리 수칙 등 자연 보호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한다. 고급 수료증 취득 과정에는 자연 보호 계획, 생태 관광, 접경지대의 보호 및 자원 경제학 등이 포함된다.

SAWC의 상급 교육 과정 교수인 파누엘 은레야는 짐바브웨 출신으로, 오랫동안 현장 경비대원으로 종사한 경력 덕에 학생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잘 안다. SAWC는 크루거 국립 공원과 인접한 위치 덕에 우수한 교수 인력 조달이 용이한 만큼 외부 전문가를 수시로 초청하며, 내부 인력도 적절히 활용한다.

NATURE AND NURTURE Both yearlong certificates comprise two college blocks and 16 weeks at students’ workplaces. During the college blocks, days are mainly spent in the classroom, but students don’t have to venture far to put theory into practice, heading to the savanna to do a vegetation transect or shadowing the on-site canine unit to learn how dogs can be used to counter poaching.

The Higher Certificate curriculum covers both basic skills like administration and computer literacy and core conservation skills such as ecology, flora and fauna, legislation and management principles. Meanwhile, the Advanced Certificate curriculum includes modules on conservation planning, ecotourism, trans-frontier conservation and resource economics.

Besides Pretorius, the SAWC’s Higher Education Program also counts Fanuel Nleya as part of its permanent academic staff. The Zimbabwean’s background as a field ranger gives him a special understanding of the challenges students face. Additionally, external experts

예를 들어 교육 과정에 포함한 인사 관리 분야를 학교 인사 담당자가 강의한다거나, 조류 관찰 분야 강의를 탐조 활동에 열심인 지역 주민에게 맡기는 식이다.

상급 과정은 수업당 25명이 수강하는데, 학생은 자연 보호 당국 및 각 학생의 근무처에서 추천한 후보자 명단에서 최종 선발돼 남아프리카 전역에서 모인 이들로 이루어진다. 입학 자격은 자연 보호 분야 최소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필수이며, 교재와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에 능통해야 한다.

말라위의 랭웨 국립 공원에서 공원 및 야생 동물 관리 부책임자로 근무 중인 브레이브 마디세는 “교육 과정을 통해 관리자로서 역량을 키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케이프타운의 테이블 마운틴 국립 공원에서 상급 현장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는 탐센 예프타는 학교의 국제적인 분위기에 관해 열변을 토하며 칭찬했다. 예프타는 “동급생들과 치열한 경쟁 관계지만, 동시에 서로 지지하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배우는 동료”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 교육 과정을 통해, 자연 보호가 “자연과 공동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글 닉 달 사진 에릭 네이션

are used every year — the college’s proximity to Kruger National Park ensures a high caliber — and the SAWC also draws on its own resources. Its HR manager lectures the HR component of the course, for example, and a resident bird-watching aficionado covers that aspect.

Each class takes 25 students, who hail from throughout southern Africa and are selected from lists provided by national conservation authorities and students’ employers. Applicants must have worked in conservation for at least three years and be proficient in English.

Brave Madise, an assistant parks and wildlife officer from Lengwe National Park in Malawi, says his course “is preparing me as a manager, someone who can hold that senior position.” Meanwhile, Tamsen Jeftha, a senior field ranger from Table Mountain National Park in Cape Town, enthuses about the international atmosphere and says her course is showing her that conservation “can be done in a way that can support both nature and community.”

📷 By Nick Dall Photographs by Eric Nathan



현장 수업을 진행 중인 강사가 코끼리의 배설물을 살피는 모습(왼쪽). 지역의 식생에 관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나무껍질을 들여다보고 있다(아래). 밀렵 대응 훈련에 참여한 SAWC의 강사와 학생(오른쪽 페이지).

An SAWC instructor examines elephant dung during a lesson in the field (left). Students analyze the bark of a tree while learning about regional vegetation (below). An instructor and students take part in anti-poaching patrol training (opposite).

